

음식쓰레기에 관한 실태조사(II)

장 원, 김미경,** 강창민, 박영숙*

대전대 환경공학과, *배달환경연구소, **YWCA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waste (II)

Won Jang, Mikyeong Kim,** Changmin Kang, Youngsuk Park*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aejon University

*Korean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YWC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is citizen's attitude and style to the foodwaste from 10th Sept. to 30th Sept. in 1996. The research was used questionare method and analysis was used p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le method by SPSS (scientific statistics). The foodwaste of householdwaste account for 24.8%, and the magnitude by the kinds of garbage were waste from pre-cocking stage, fruitshell, foodwaste remained after eating, septic foodwaste during storage. The more the housewives'age are young, foodwaste volumne were much.

Most remained foodwaste after eating were soup and pot stew. The main cause of foodwaste production was overvolumne cooking. 88.8% of answers think that a menu can be useful to reduce foodwaste.

The survey showed that 87.3% of answers put into the meter-rate bag after removed wetness of garbage. 84.1% of answers thought that the recycling of foodwaste needed, but the practical housewife was only 21%. For the suitable treatment of foodwaste, Survey showed that the consistent policy of government and continuous publicity was needed essentially, and that the public notice of TV or radio was effective.

All of answers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recycling of foodwastes whether public-posting or personal-posting. To set up vessel of posting at household, the proper purchase price and space of institution are needed, also the solution of sanitary &

aesthetic problem and the collection of composting-product must be achieved smoothly.

Key words : Foodwaste, Recycling, A scheduled menu, Composting

요 약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8%이며, 발생 형태별로는 재료를 다듬는 과정>과일껍질>음식찌꺼기>상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순이었다. 또 주부들의 연령이 낮을 수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높았고, 식후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찌꺼기는 국과 찌개였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필요량 이상으로 조리하기 때문이었다. 88.8%의 응답자가 계획적 식단작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실천율은 39.8%로 낮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는 87.3%의 주부가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84.1%의 응답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실천 중인 주부는 전체의 2.1%로 매우 미약했다.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마련과 지속적 홍보가 필수적이며,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의 참여 의사는 공동퇴비화 및 개별퇴비화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가정용퇴비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구입 가격, 설치공간, 위생상·미관상의 문제 해결 및 생산 퇴비의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음식쓰레기, 재활용, 식단작성, 퇴비화

1. 서 론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음식쓰레기의 과다 발생, 억제방안 및 효과적 처리·처분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정쓰레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한 침출수발생 및 열효율저하 등의 문제로,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이 다른 어떤 폐기물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효과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과 배출의 원인이 되는

각 가정의 소비행태와 주부의식에 대한 폭 넓은 조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음식쓰레기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주부들의 전반적인 의식과 행태 등을 조사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2 조사기간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96년 9월 10일~9월

30일

통계분석 : 96년 10월 1일~10월 31일

2.3 분석방법

빈도 및 교차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2.4 조사의 한계

조사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추출하였으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주부 전체를 정확히 대표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쓰레기의 발생 행태

식물쓰레기는 다량의 수분함유로 소각처리가 어렵고, 또한 매립의 경우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중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번호순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껍질 등의 쓰레기, 식사 후 남은 음식쓰레기, 보관중 상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순으로 많았다. 앞의 조사 결

과에서 주부들의 77.0%가 야채 구입시 다듬어 지지 않은 상태로 구입후 직접 다듬는다고 응답하여 가정쓰레기중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은 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야채는 되도록 신선도가 높은 제품을 구입하여 바로 조리할 할 경우 다듬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싸다고 충동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음식쓰레기 중 식사후 가장 많이 남기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64.4%가 국 또는 찌개를, 11.8%가 생선 및 육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국이나 찌개류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식사후 음식찌꺼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외에도, 국물의 하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 및 매립에 의한 침출수 발생 등의 복합적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적정량을 조리

표 2. 식사후 음식찌꺼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밥	15	1.8
국 또는 찌개	531	64.4
김 치 류	43	5.2
나 물 류	64	7.7
생선, 육류	97	11.8
기 타	75	9.1
계	825	100.0

표 1. 음식물쓰레기의 과정별 발생량.

항 목	응답자(명)					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무응답	
조리를 위해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25 (63.6%)	183 (22.2%)	42 (5.1%)	24 (2.9%)	51 (6.2%)	825 (100%)
식사후에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	60 (7.3%)	95 (11.5%)	377 (45.7%)	193 (23.4%)	100 (12.1%)	825 (100%)
나중에 조리하려고 보관했다가 상해서 버리는 쓰레기	19 (2.3%)	75 (9.1%)	203 (24.6%)	417 (50.5%)	111 (13.5%)	825 (100%)
과일껍질 등 먹고나면 생기는 쓰레기	221 (26.8%)	373 (45.2%)	89 (10.8%)	72 (8.7%)	70 (8.5%)	825 (100%)

하고, 또 소량씩 덜어서 먹는 습관이 요구된다.

표 3은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6.1%, 10%~30%가 40% 그리고 30%~50%가 25.6%로 평균 24.8%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을 주부의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가 28.6%, 30대가 27.7%, 40대가 23.7%, 50대가 20.3%, 60대가 10.7%로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식사준비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그 중 많은 양은 노력 여하에 따라 훨씬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표 4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기로 나타낸 것으로, 필요량보다 많이 조리하

기 때문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을 남기는 습관 18.8%, 필요 이상 구입 16.6%, 많은 반찬가지수 12%, 기타 8.5%였다.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량화를 통한 적정량 조리, 정확한 식사 습관 등으로 묵혀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5는 과도한 상차림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가정의 밥과 국을 제외한 반찬류의 평균 가지수를 문의한 결과 평균 4.3가지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식사시 과도한 상차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님 초대시 등에 허례허식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가지수와 많은 양의 음식을 차리는 행태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음식은 반찬가지수가 많고 또 국물이 있는 음식이 많아 음식물쓰레기의

표 3.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율.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10% 미만	14 (23.7%)	60 (16.9%)	65 (29.3%)	63 (37.3%)	13 (61.9%)	215 (26.1%)
10~30%	17 (28.8%)	148 (41.8%)	89 (40.1%)	68 (40.2%)	8 (38.1%)	330 (40.0%)
30~50%	21 (35.6%)	113 (31.9%)	49 (22.1%)	28 (16.6%)	-	211 (25.6%)
50~70%	6 (10.2%)	30 (8.5%)	16 (7.2%)	8 (4.7%)	-	60 (7.3%)
70% 이상	1 (1.7%)	3 (0.8%)	3 (1.3%)	2 (1.1%)	-	9 (1.1%)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4. 음식쓰레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필요한 량보다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17 (28.8%)	67 (18.9%)	25 (11.3%)	22 (13.0%)	6 (28.6%)	137 (16.6%)
필요한 량보다 많이 조리하기 때문에	29 (49.2%)	163 (46.0%)	98 (44.1%)	67 (39.6%)	7 (33.3%)	364 (44.1%)
반찬가지수가 많은 상차림 때문에	4 (6.8%)	24 (6.8%)	35 (15.8%)	33 (19.5%)	3 (14.3%)	99 (12.0%)
음식을 남기는 습관 때문에	4 (6.8%)	76 (21.5%)	38 (17.1%)	36 (21.3%)	1 (4.8%)	155 (18.8%)
기 타	5 (8.5%)	24 (6.8%)	26 (11.7%)	11 (6.5%)	4 (19.0%)	70 (8.5%)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5. 가정식탁의 밥과 국을 제외한 반찬류의 평균 가짓수.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1~2가지	31	3.7
3~4가지	429	52.0
5~6가지	339	41.1
7가지 이상	26	3.2
계	825	100.0

처리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외국처럼 주식과 부식이 통합된 식단의 보급, 뷔페식 식사방법의 도입, 소형 찬기의 사용 등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2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노력

표 6은 주부들의 음식줄이기에 대한 노력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전체의 50.8%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많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43.8%가 어느 정도는 노력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94.6%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력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8.8%)와 60대(95.2%)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7에서 식단작성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전체의 88.8%인데 비해, 실제로 식단을 작성한후 조리를 하는 주부는 39.8%로 나타나 장바구니 사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동과 의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조사의 경우 다른 조사결과인 주간 단위별 식단 작성 비율 4.8~9.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6) 및 평소 식단을 작성하는 비율 9.7% (강성진, 1993)에 비해 식단 작성 비율이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일정기간 단위의 정기적인 식단 작성 외에 식품구입 전에 대략적인 식단을 메모하는 비율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8의 연령별 식단작성여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단작성비율은 증가했다. 식단 작성은 식품의 계획적 구매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나 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담스

표 7. 식단 작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여부.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아주 도움이 된다	283	34.3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450	54.5
별로 도움이 안된다	85	10.3
전혀 도움이 안된다	7	0.8
계	825	100.0

표 6.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여부.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많이 노력한다	17 (28.8%)	142 (40.1%)	125 (56.3%)	115 (68.0%)	20 (95.2%)	419 (50.8%)
어느정도 노력한다	35 (59.3%)	188 (53.1%)	89 (40.1%)	48 (28.4%)	1 (4.8%)	361 (43.8%)
생각은 있으나 하지 못한다	6 (10.2%)	23 (6.5%)	8 (3.6%)	6 (3.6%)		43 (5.2%)
생각도 없고 노력도 안한다	1 (1.7%)	1 (0.3%)				2 (0.2%)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8. 연령별 식단의 작성 여부.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미리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식품을 구입하고 조리한다	17 (28.8%)	124 (35.0%)	100 (45.0%)	73 (43.2%)	12 (57.1%)	328 (39.8%)
식단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아서 못하고 있다	37 (62.7%)	204 (57.6%)	99 (44.6%)	73 (43.2%)	7 (33.3%)	423 (51.3%)
식단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5 (8.5%)	26 (7.3%)	23 (10.4%)	19 (11.2%)	2 (9.5%)	74 (8.9%)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9. 취업별 식단의 작성 여부.

항 목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계
미리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식품을 구입하고 조리한다	195 (40.4%)	84 (46.7%)	49 (30.2%)	328 (39.8%)
식단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아서 못하고 있다	243 (50.3%)	82 (45.6%)	98 (60.5%)	423 (51.3%)
식단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5 (9.3%)	14 (7.8%)	15 (9.3%)	74 (8.9%)
계	483 (100%)	180 (100%)	162 (100%)	825 (100%)

러운 일일수도 있으므로 계절에 맞는 적절한 보 기 식단을 작성하여 주부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3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보다도 수분으로 인해 처리 및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표 10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물기제거후 배출하는 주부가 87.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을 바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는 4.0%에 불과하고, 80.0%의 주부가 일반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닐봉투의 과다 사용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오수나 냄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종량제봉투가 음식물쓰레기를 담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제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몰래

표 10.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방법.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
물기가 있는채로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79	9.6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660	80.0
물기를 제거한 후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33	4.0
물기를 제거한 후 종이봉투에 넣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	27	3.3
땅에 그대로 묻는다	7	0.8
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	17	2.1
기 타	2	0.2
계	825	100.0

넣어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은 음식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주부는 전체의 2.1%로 매우 미약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부는 84.1%에 달하여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향후 퇴비화 및 사료화 등의 재활용기술과 음식쓰레기 자체의 감량화에도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관성있는 정책마련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1. 가정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 여부.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필요하다	694	84.1
필요치 않다	57	6.9
생각해본 적이 없다	74	9.0
계	825	100.0

표 12와 표 13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의 홍보에 관한 것으로, 홍보를 보거나 들은 주부는 전체의 74.2%였고, 가장 많이 듣거나 본 홍보매체의 종류는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광고(70.6%)였으며 다른 매체를 이용한 홍보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행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의 홍보를 듣거나 보았는지 여부.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있 다	612	74.2
없 다	213	25.8
계	825	100.0

표 13. 듣거나 본 홍보의 종류 (중복 응답).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광고	583	70.6
교육용 홍보책자	108	13.1
홍보전단 또는 리후렛	98	11.9
강좌 또는 견학	73	8.8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15	1.8
기 타	27	3.3

3.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의 참여 의사

요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작업은 지역별로 공동 실시하는 방법과 가정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음식물쓰레기의 공동 퇴비화작업을 하려면 일정 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분리 수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 14에서는 주부들에게 음식물쓰레기만을 따로 모아 물기제거후 일정기간에 한번씩 지정된 장소로 따로 배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59.2%의 주부들이 다른 사람의 시행과 관계 없이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고, 31.2%의 주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같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로 보아 음식물쓰레기의 지역별 공동 퇴비화가

표 14.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물기 제거후 일정기간에 한번씩 지정된 장소에 따로 배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다른사람의 시행과 관계없이 참여하겠다	488	59.2
다른사람들이 하면 같이 참여하겠다	258	31.2
참여할 의사가 없다	30	3.6
잘 모르겠다	49	5.9
계	825	100.0

표 15.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 의사.

항 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계
적극 구입하겠다	116 (30.4%)	49 (27.8%)	85 (31.8%)	250 (30.3%)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구입하겠다	224 (58.6%)	114 (64.8%)	167 (62.5%)	505 (61.2%)
구입하지 않겠다	42 (11.0%)	13 (7.4%)	15 (5.6%)	70 (8.5%)
계	382 (100%)	176 (100%)	267 (100%)	825 (100%)

표 16. 퇴비화용기의 적절한 가격.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3만원 미만	536	71.0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168	22.3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32	4.2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7	2.3
10만원 이상	2	0.2
계	755	100.0

표 17. 퇴비화 용기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33	47.1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8	11.4
위생상 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18	25.7
구입하는데 돈이 드므로	7	10.0
기 타	4	5.7
계	70	100.0

시행된다면 주부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와 표 16은 각 가정에서 가정용 쓰레기 퇴비화용기의 구입 의사 및 가격에 관한 것으로, 91.5%의 응답자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가정용퇴비화 용기의 적절한 가격을 71.0%의 주부가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만일 가정용 퇴비화 용기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높고, 용기가 보급형으로 싸게 공급되거나 정부의 보조가 있다면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은 퇴비화 용기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경우(8.5%), 그 이유로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생상, 미관상 좋지 않아서(25.7%), 관리하기가 귀찮아서(11.4%), 구입하는데 돈이 드므로(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으로 보아 위에서 많은 주부들이 가정용 퇴비화 용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실제 설치에 있어서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주부들과 같은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정용 퇴비화용기 설치가 성공하려면

퇴비화 작업의 용이성, 용기의 소형화, 외관이 예뻐야 하며, 냄새문제의 해결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용의 간편성 및 용기, 효소 등이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8%이며, 발생 형태별로는 재료를 다듬는 과정>과일껍질>음식찌꺼기>상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순이었다. 또 주부들의 연령이 낮을 수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높았고, 식후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찌꺼기는 국과 찌개였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필요량 이상으로 조리함 때문이었다. 88.8%의 응답자가 계획적 식단작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실천율은 39.8%로 낮

았다.

3.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는 87.3%의 주부가 물기를 제거 후,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84.1%의 응답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실천 중인 주부는 전체의 2.1%로 매우 미약했다.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마련과 지속적 홍보가 필수적이며,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의 참여 의사는 공동퇴비화 및 개별퇴비화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가정용퇴비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구입 가격, 설치공간, 위생상, 미관상의 문제 해결 및 생산 퇴비의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제 언

결론적으로 주부들의 환경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의식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확실한 해결방안 마련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신뢰감의 확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적절한 실천 동기 부여 등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쓰레기 재활용의 문제를 처리 차원인 청소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기존 인식의 틀을 버리고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부와 주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지침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TV 또는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미관, 위생, 편의성의 문제를 고려한 가정용 퇴비화 용기를 개발하고 이를 각 가정에서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로의 불법 배출 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물기의 하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부는 첫째, 장바구니를 사용하자.(장바구니에 여러가지 식품을 함께 담기 어렵다면 여러 개의 비닐을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자) 둘째, 주간 단위의 식단 작성으로 식품 필요량의 정확한 예측 및 계획적인 구매를 통해 필요없는 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주부들이 직접 식단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계절에 맞는 보기 식단을 마련하여 주부들이 참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필요량만큼만 조리하고, 소형 그릇의 사용과 뷔페식 식사방법의 도입으로 식사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1993), 가정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6), 음식쓰레기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